

◎ 한기총, NCCK 주최 한국교회 8.15 대성회 연합 ◎

남가주 교협 8.15 광복절 연합 예배드린다

8월 15일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한국교회협의회(회장 전병호 목사)와 공동으로 한국교회 연합 차원에서 남가주 각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8.15 기념 예배를 드린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는 총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오후5시 한기총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 정도출 목사(한국비전교회 담임)를 초청해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위한 특별기도 시간 세계비전교회 담임 김재연 목사(남가주교협부회장)는 ▲조국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남가주교협부회장)는 ▲미국의 신앙 부흥과 경제 회복을 위해,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부회장)는 ▲이민교회의 부흥

과 동포사회 번영을 위해,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는 ▲동포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 드린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 남가주교협직전회장 한중수 목사, 로스앤젤레스 김재수 총영사, LA 한우회 회장 서영석 장로가 각각 축사를 전한다. 이어 민중기 목사가 환영 인사를 전한 후, 한기총 감동(남가주교협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칠 예정이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는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8.15 기념 연합예배를 드린다. 이날 설교는 김승욱 목사(전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가 전한다.

박용덕 목사는 “8월 15일 광복절은 한국이 일제 압제에 있다 해방 받은 마치 이스라엘의 유월절 같은 중요한 날이므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며 “특히 이번 연합예배는 한인 1.5세, 2세대들이 함께 참여해 8.15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동영상 준비했다”고 전했다.

LA 동부지역 교역자협의회(회장 강일용 목사)는 8.15 광복절 기념 연합 찬양예배를 15일 오후 6시 유니온교회(담임 문병용 목사)에서 드린다. 설교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목사)가 전하며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가 중보기도를 드린다. 유니온교회 안만기 목사가 이끄는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한다.

강일용 목사는 “한인 성도들이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지만 광복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민족 해방의 역사를 감사드리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광복절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나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아프간에서 희생된 IAM 팀원 10명 중 8명의 사진. 시계 방향으로 세릴 베케트 · 32세, 브라이언 카더렐리 · 25세, 글렌 랩 · 40세, 톰 리틀 · 61세, 맨 테리 · 63세(이상 미국인), 다니엘라 베이어 · 35세(독일인), 조드 · 24세, 마흐람 알리 · 50세(이상 아프간인). ©IAM

IAM “아프간 진정으로 섬긴 그들”... 희생자들 추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애도 표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괴한들에 의해 10명의 팀원들을 잃은 인도주의 구호단체 국제지원단(IAM)이 숨진 동료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혔다.

더크 프랜스 IAM 사무총장은 “우리는 희생된 동료들이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 보여 온 헌신을 기리기 원한다”고 성명에서 밝히고 “그들을 알아 온 사람들과, 봉사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모든 가진 것을 의미있는 일에 쓰기로 결심했고 이 곳에서 봉사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스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서의 활동을 철수할 계획은 없다며, “우리는 아프간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동안은 여기에 계속 머무르며 그

을 도울 것이다”고 밝혔다.

1966년부터 아프간에서 활동해 온 IAM은 현지 구호단체들 중 가장 오랜 기간 아프간 국민들을 섬겨 왔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무자비한 학살 행위를 그릇된 구실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또한 10명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관대함을 실천한 영웅들이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손현정 기자)

미주 온누리 사역축제 이민교회와 함께

온누리 핵심가치와 사역 나눔, 고든 맥도널드 등 강사로

온누리교회(담임 하용조 목사) 창립 25주년을 기념한 2010년 미주 온누리 사역축제(OMC:Onnuri

Ministry Celebration)가 오는 9월 16일~18일까지 일리노이 온누리교회(담임 박종길 목사)에서 개최

된다. OMC는 온누리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된 핵심가치와 사역을 함께 나누는 사역축제로 이미 한국 온누리교회는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미주

OMC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에 미주 온누리교회 연합(OMA:Onnuri Mission Alliance)은 지난 5일 사역축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온누리교회의 사역축제를 통해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적 꿈을 심어 줌으로써 미주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OMA 대표 박종길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 고단한 이민생활에 지쳐있는 한인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단순히 온누리교회를 위한 축제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OMC는 크게 온누리교회의 ‘핵심가치’를 나누는 주제 강연과 ‘핵심 사역’을 나누는 선택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이 밖에도 저녁집회와 패널토의, 스페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 다. ▶ 3면에 계속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제2회 KODIM 이민목회자 서부지역 컨퍼런스 2010

2010. 10.18(월) - 20(수) 2:00 PM

주제 이민교회 세우기, “또 교회 세우?”

2008년 제1회 컨퍼런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의 빌리그래함센터에서 200여명의 이민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 사역자 세우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제 2010년 제2회 컨퍼런스는 “이민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서부지역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소규모로 진행되며, 주 강사들의 전체강의와 코디머들의 분야별 workshop, 그리고 참석하시는 사역자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대형교회 중심의 성공적인 이야기보다는 소형교회 중심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꿈꾸는 사역자와 섬기는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장소: 선한목자장로교회 (Korea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nue, Rowland Heights, California 91748 (L. A. 근교)
Tel: (626) 965-3443 http://sunhanchurch.com

대상: 이민교회에서 전임(Full-Time)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부교역자도 해당됨)
접수: 선착순 50명 (8.31일까지) (www.kodim.us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등록)
접수시, pay to "KODIM" check, 최근 주보1장,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등록비: \$100.00(숙박을 위한 호텔이 필요한 경우, 2인1실 2박에 \$50추가하여 \$150를 보내주세요)
문의 및 접수: 늘푸른선교교회 (구경모 목사, Tel: 714-743-3402)
Mission Community Church (Kodim)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주강사
림형천 목사 (나성영락교회)
주강사
박광철 목사 (조이벨로교회)
주강사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분야별 주제 및 강사
“이민교회 활동과 분쟁해결을 위한 창조영성” - 오정택 목사 (L. A.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이민교회 성도를 위한 치유와 상담설교” - 권석균 목사 (아들란타 지구촌교회)
“이민교회 셋팅에서의 효과적인 전도전략” - 최성은 목사 (배쉬빌 다리놓는교회)

“이민자(교회)와 선교에 대한 성서 & 신학적 접근” - 김신일 목사 (달라스 연합교회)
“이민교회의 차세대 목회전략” - 김성찬 목사 (버팔로 세스망장로교회)
“인터넷을 통한 한인교회의 네트워크 선교 전략” - 김동욱 목사 (덴버 한인교회)
“이민신학: 이민목회를 위한 삼위일체론적 접근” - 구경모 목사 (L. A. 늘푸른선교교회)

주최: 코딴(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 WWW.KODIM.US) - 멘토 그룹: 한기홍 목사, 정인수 목사, 박광철 목사, 고태형 목사
- 코디머(전문위원): 오정택 목사, 최성은 목사, 권석균 목사, 구경모 목사, 김성찬 목사, 김신일 목사, 신현철 목사, 박연담 목사, 김동욱 목사

■ 동성애 관련 연방법원 판결 중 가장 급진적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위험성 우려 이상”

지난 4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시킨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8을 위헌으로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은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우려 이상이라고 한 북음주의 신학자가 주장했다.

남침례신학교(SBTS) 학장 R. 앨버트 몰러 Jr. 박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 때까지 우리는 연방법원에서 이처럼 급진적인 판

결이 내려진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번 판결이 몰고 올 (나쁜 쪽으로의) 파급력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본 R. 위커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은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결혼이란 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전제로, “프로포지션 8이 결혼이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동성 커플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커 판사의 이러한 결혼의 정

의에 따르면, 당연히 주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로포지션 8은 그의 표현대로 “이성 커플이 동성 커플보다 우월하다는 종교적 신념을 헌법에 심으려는 편협한 시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실제로 위커 판사는 “프로포지션 8은 사적인 판단 기준 외에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성적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프로포지션 8의 무효화를 명령했다. 몰러 박사는 위커 판사의 주장이 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것 외에도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비이성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위커 판사는 동성 결혼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대목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 “성은 부모로서의 자질과도 아무 관계가 없으며, 동성 부모이든 이성 부모이든 자

녀들은 적응할 수 있다”고 쓰기도 했다. 몰러 박사는 이를 두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지혜가 눈앞에서 뒤집혀졌다”며 “이 부분은 위커 판사가 단순히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성애를 이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몰러 박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책임이 연방법원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많은 동성

결혼 반대자들이 이 판결의 중요성을 축소하고자 애쓰는 것과는 반대로, 불행하게도 이미 이 판결이 연방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상관없이 향후 미국의 가치 체계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이 동성결혼을 금지해 놓은 타 주 결혼법과 연방결혼법(DOMA)의 반대자들에게 매우 이로운 판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제3차 로잔대회, ‘케이프타운 조약’ 채택 예정

오는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제3차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 로잔대회에서 북음주의 선교 문서의 역사적 계보를 잇는 새로운 문서가

라 선언문(Manila Manifesto)을 이어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적, 선교적 상황 속 세계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존 스토틀 목사에 의

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북음주의 도입을 천명함으로써 그 시대 절실하게 요청되던 북음주의 선교운동의 신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어 1989년 발표

와의 관계 등 새로운 선교의 도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앞선 로잔언약의 보완적 문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온전한(holistic) 북음 전파와 함께 20세기 내 세계복음화 달성을 촉구한 이 문서는, 로잔언약과 마찬가지로 존 스토틀 목사가 초안을 담당했다. 이들 문서들 다음으로 올해 10월 제3차 대회가 채택할 케이프타운 조약은 존스토틀 미니스트리즈(John Stott Ministries) 디렉터인 크리스 라이트(Wright) 박사에 의해 초안이 마

련된 상황이며, 대회 기간 200여 국가에서 모일 4천여 북음주의 지도자들의 논의를 반영해 대회 끝에 발표될 예정이다.

로잔세계복음화운동 국제 디렉터인 린제이 브라운 박사는 “오늘날 특히 서구 교회에서 북음전도와 북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공동의 합의에 도달해야 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케이프타운 조약은 북음주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약은 또한 오늘날 북반구 교회들의 교세 감소와 남반

구 교회들의 눈에 띄는 성장이라든지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의 팽창 등 오늘날 북음주의 교회들이 마주한 정황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브라운 박사는 말했다.

한편, 더그 버드셀 의장은 이 조약이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권위”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 가해지고 있는 외적인 압력은 물론 내적 갈등에 대한 북음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3차 로잔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손현정 기자)

로잔 언약·마닐라 선언 잇는 새로운 선교 문서 될 듯

채택될 예정이다. ‘케이프타운 조약(Cape Town Commitment)’으로 이름 붙여질 이 문서는 제1차 대회의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과 제2차 대회의 마닐라 선언문(Manila Manifesto)을 이어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적, 선교적 상황 속 세계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해 초안이 작성된 로잔언약은 당시 에큐메니칼 진영이 주창하고 나온 폭넓은 구원 개념과, 선교의 모라토리엄 사상이 초래한 선교신학의 혼돈 가운데서 교회

된 마닐라 선언문은 15년간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그 주제가 확대된 활발한 선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동안 이뤄진 급속한 사회적·이데올로기적 변화와 타 종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번호 : (213) 739-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늘 주의 권능으로 치료받는 광선 치료의 역사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은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의 권세이다

신유대성회

8월 15, 22, 29일 1시30분pm
영광빛복음교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 심한 내치질과 출산 후유증의 산후풍과 심한 빈혈에서 한번의 안수로 치료 받았습니다-조영주 권사
- ▶ 척추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가 되는 병에서 목사님의 안수로 치료 받았습니다-김희숙 권사
- ▶ 교통사고로 수술도 못하는 무릎 속의 파손과 무릎 통증의 고통에서 목사님의 안수로 깨끗이 치료 받았습니다-김은주 전도사
- ▶ 신생아 이형주의 뇌출혈과 심한 황달병을 치료 받았습니다-아기엄마 이효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강사 목사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97가지
 성령의 은사와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성회입니다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지금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강사
 우대권 목사**

영광 빛 복음 교회 담임
 한미음 교회 담임
 21세기 목회자 영성 훈련 세미나 강사
 동광 금초대 기도원 원장
 대한민국 현대 인물사 수록
 저서-아름답고 신비한 영광 극치의 천국
 의 24권

문의전화 (714)833-2568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왼쪽부터)고든 맥도널드 목사, 리준석 목사, 박종길 목사, 조정민 목사

▶ 1면에 이어

주 감사로(주제 강)는 고든 맥도널드 목사(전 덴버 신학교 총장 World Relief총재), 리준석 목사(온누리교회 총괄수석), 박종길 목사(알바인온누리교회 담당), 조정민 목사(CGNTV 사장)등이 나서며, 선택강의 감사로는 손정훈 목사(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공진수 목사(밴쿠버 온누리교회), 김영진 목사(알바인 온누리교회 부목사), 이기원 목사(보스턴 온누리교회), 김성원 목사(포틀랜드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IN2 온누리교회)등이 나선다.

특히 온누리 핵심사역인 '새가족', 'QT', '예배', '회복과 치유', '선교', '차세대' 등의 선택강의에 참여할 경우 교재와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해 각자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예정이다. 지난 1985년 서울 한남동에서 창립한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003년 Acts29 비전 선포에 따라 전 세계에 온누리 비전교회가 개척됐다. 미주지역에

는 지난 2003년 8월 알바인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포틀랜드, 앵커리지, 웨스트 시카고, 노스 시카고, 보스턴, 뉴욕, 밴쿠버, 팜 등 11개의 비전교회가 부흥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하용조 목사는 "Acts29라는 비전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닦기 원하는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이자 이것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며 "이번 OMC를 통해 온누리교회에 부여하신 사도행전적 꿈과 성령님의 은혜를 미주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초청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OMC에 참여를 원하는 교역자나 사모, 신학생들은 무료 등록이며 사전 일반등록(8월 31일까지)은 \$50, 당일 등록은 \$80이다. (숙박은 별도)

문의 및 등록: 213-382-5658 (김관희 간사)

인터넷 등록: www.on-nuri.org

우편등록: 616 S. Westmoreland Ave. #307 LA CA90005(등록 신청서 및 Check) <박상미 기자>



남가주교협 작은교회 교역자 자녀 위한 장학금 마련한다



(왼쪽부터)남가주 교협 총무 박세현 목사, 행사 준비위원장 백지영 목사, 남가주 교협 회장 지용덕 목사. ©지재일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교회 교역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 1일 식당을 8월 30일(월)부터 31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3시 한식

당 다호갈비에서 개최한다. 남가주교협은 9일 다호갈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식당 행사를 위해 사전에 10달러 식권을 5,000매를 인쇄해 교회와 한인단체, 독지가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총 5만불의 수익금을 남겨 9월 중 작은교회 목회자 자녀 40명에게 각각 500달러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일 식당 메뉴는 육개장, 갈비탕, 비빔밥, 냉면, 된장찌개다.

지용덕 목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교회의 장학 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교협이 중심이 돼 남가주 교회들이 연합하여 작은교회 살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행사는 교협 회장 당선시 내세운 작은교회 살리기 공약을 실천한다는 뜻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용덕 목사는 "교협에서 9월 중 큰교회와 작은교회들 간에 강단 교류 및 성가대 찬양, 교회 사역을 위한 헌금 지원 등 작은교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시: 8월 30일-31일
장소: 다호갈비
주소: 3986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문의: 323-404-3147
(지재일 기자)

'지역사회 위한 사랑의 섬김'

은혜의방주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지역사회위원회 주관, 제4차 방주교실이 열리고 있다.

방주교실은 여름방학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학 등 교육 시간과 음악, 미술, 체육, 지역사회 봉사 등 6주간 진행된다. 이번 제4차 방주교실은 8월 18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총 160명의 어린이들과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담임 김동일 목사와의 미니 인터뷰 내용.

-교회에서 방주교실을 열게 된 계기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방학 기간이 되면 갈 곳이 없어 도서관에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독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은 방학동안 수천불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지불하며 필요한 교육을 다 받고 있지만 방주교실은 6주간 80불만 받고 영어, 수학 등 학업과 음악, 미술, 체육, 필드 트립(Field

Trip) 등을 실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방주교실의 주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오전에는 영어와 수학 등 교과목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바이올린, 클라리넷, 기타 등 음악시간과 만들기, 종이접기 등 미술시간, 태권도, 하키, 수영 등 체육시간을 갖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인근 해변이나 놀이공원 등으로 필드 트립을 떠난다.

-앞으로 방주교실을 통한 비전은?

첫번째는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방주교실의 아이들이 스스로 모은 돼지 저금통을 홈리스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방주교실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다.

<지재일 기자>



사진-교회 앞마당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겼다 ©지재일 기자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주 관 : LA 동부지역 교역자 협의회

광복절 기념 동부지역 연합 찬양예배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 일 시 : 2010년 8월 15일 (주일) 저녁 6시
- 장 소 : 유니온교회 (담임목사 문병용)
710 N.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Tel. 626-858-8300

회장: 하니로커뮤니티교회 김일웅 목사	뉴하트교회 권홍량/박문환 목사	미주세백교회 이정석 목사	은성교회 황명길 목사
부회장: 아름다운교회 고순희 목사	기쁨장로교회 이승재 목사	반석위예세운교회 김성철 목사	주님의교회 김병학 목사
총무: 엠마오교회 김민섭 목사	나성교회 정동석 목사	브리지교회 장세정 목사	중앙침례교회 장철훈 목사
서기: 하늘성교회 김형구 목사	동부가나안교회 백정수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고태형 목사	축복교회 김인경 목사
글로벌선교회 김지성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목사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	크로스로드교회 전길성 목사
나성현이교회 전병주 목사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	성화사랑의침례교회 이종철 목사	한빛성결교회 차광일 목사
갈보리복음교회 이달은 목사	디베라장로교회 황인식 목사	예수사랑은교회 하만진 목사	호인교회 이정석 목사
	로그교회 김명선 목사	유니온교회 문병용 목사	호산교회 라세영 목사

김승욱목사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LA 송실 OB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성황

8일 마지막 주일에배서 눈물의 고별설교 전해

8월 8일로 남가주사랑의교회 마지막 주일 설교를 전한 김승욱 목사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 김승욱 목사는 고별설교 말미에서 “지난 6년 동안 정말 행복했었다”며 “영광스러운 사역이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다. 함께 눈물을 흘리던 성도들은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였다. 김승욱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 마지막 설교에서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권면했다. 본문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사도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다.

그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은혜 안에서 강건한 모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서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교회에 축



8일 고별설교를 전한 김승욱 목사

시 다져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전했다. 또한 “은혜 안에서 강건한 모습이란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이라면서 “세상은 얼마나 빨리, 누가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

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려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은혜 안에서 강건한 모습이란 추수 때를 바라며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같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담담히 설교를 이어가던 김승욱 목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어느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은 땅 끝에서 모두 만날 것”이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한다”며 눈물의 설교를 마쳤다.

(박상미 기자)

LA 송실 OB 남성합창단(지휘 이영두 교수)이 제19회 정기연주회를 지난 7일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에서 합창단은 You raise me up, Sanctus, 영원한 왕, 가고파, 목련화 등 화려한 곡을 통해 남성합창의 진수를 선사했다.

LA 송실 OB 남성합창단은 송

(지재일 기자)



LA 송실 OB 남성합창단

영어, 이젠 ‘ORT 칼리지’ 에서 배우세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어를 잘하지 못해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ORT 칼리지’의 문을 두드려 보자.

LA ORT 칼리지(Original Repair Technic College: 이하 ORT)에서는 영주권자 이상의 저

소득층을 위한 실용영어와 고급 영어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8개월간 6단계로 나누어 기초부터 고급영어까지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ORT는 이 밖에도 다채로운 직업교육 강좌를 운영해, 수료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

한인담당 플라워 박 씨는 “한인 타운 인근에 있지만 한인들이 잘 몰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영어 때문에 더 나은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라”고 적극 권했다.

플라워 박 씨 또한 이곳 ORT에서 영어를 배우고 직업까지 얻게 됐다. 영주권을 얻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 온갖 힘든 일만 할

르기까지 매주 24시간 8개월 동안 집중력 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강생들이 담당선생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담당선생들의 교수법 또한 수준이 높다.

영어수업에 이어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어시스턴트,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퍼블리싱, 컴퓨터 디자인, 컴퓨터 어카운팅, 메디컬 어시스턴트, 비서 등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받은 후에는 학생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역에도 있다. 플라워 박 씨는 “한인 타운에는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다.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에 더 많은 한인 크리스천들이 들어와 배우고 교류함으로써 장차 그들에게 크리스천의 문화도 알리고 싶다”며 “누구든지 언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 말했다.

플라워 박 씨는 끝으로 영어 수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LA ORT의 또 다른 한인담당 Grace Lee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처럼 따뜻하고 열정을 가진 담당자들에게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323-556-5386, 213-434-8128 한인담당 플라워 박(Flower Park) 주소: 6435 Wilshire Blvd LA, CA 90048(Wilshire +Lajolla, 20번 버스)

(박상미 기자)



ORT 한인담당 플라워 박(Flower Park). ©박상미 기자

한인담당 플라워 박 “저소득층 영주권자 무료로”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부러워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ORT에서 무료로 영어를 배우고 직업훈련까지 받아 여전한 직장인이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과 같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플라워 박씨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실제 ORT의 영어수업은 여타 어덜트 스쿨 방식과 차이가 다르다. 10명 내외의 수강생들은 문법과 어휘, 생활영어, 고급회화에 이

연계해 주기도 하며, 그 결과 때마다 9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플라워 박씨는 “영어수업은 학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2010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 개강 2010년 8월 23일(월)



본교의 사명과 특징

국제개혁대학교의 사명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신앙 공동체의 회원들에게 장래 사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토록 육성함에 있습니다.

1. 본교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교단(KAPC)의 직영 대학교 및 신학 대학원입니다.
2.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 B.P.P.E 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고
3. 미연방정부 교육부 (USDE)의 인준 기관인 ABHE의 준회원으로 정식학위를 수여합니다.
4.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인정 및 편, 입학 가능합니다.
5.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연방정부 교육프로그램 Pell Gran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졸업 후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7.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20를 발행합니다.
8. 본교 졸업 후 미국 군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한인교단으로는 최고 20명이 군목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9. 본교는 Distance Education 열린 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현재 있는 곳에서 본교의 강의를 Internet Online 과 교안으로 학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0. 본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본교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DEGREE PROGRAM 학위과정

PROGRAM 학제	DEGREE 학위	입학자격
Undergraduate Program 대학부(B.A)	기독교학사: 신학과 / 교육과	고졸, 동등학력 소지자 세례교인
Graduate Program 대학원(M.A M.Div)	기독교학석사: 목회과 / 신학과 / 교육과	대졸, 학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학력자
Certificate Program 자격증 과정	Preschool Director Certificate 유치원 원장 자격	고졸 및 동등학력자
	Preschool Teacher Certificate 유치원 교사 자격	고졸 및 동등 학력자

- ▶ 등록기간 : 2010년 8월 2일(화) - 9월 3일(금)
- ▶ 개 강 : 2010년 8월 23일(월)
- ▶ 입학상담 : 나 벤자민 교무처장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iruskapc@yahoo.com
총장서리 : 황은영 박사 이사장: 오영중 박사



7월 19일 LA에 도착한 꿈땅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정우성 목사, 정한나 사모.

꿈땅 프로젝트 '하나님의 꿈동인들이 되어'

한국 결핵환자의 대부이자 크리스마스 썰의 창시자로 알려진 셔우드 홀은 2살 때 조선에서 아버지를 잃은 선교사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에 파송된 의료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로 순직할 당시 나이 34세였다. 이미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는 이후 둘째 딸도 풍토병으로 잃게 되지만 그녀는 헌신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그의 어린 아들들 홀로하게 키워냄으로써 결국 아들 서

2008년 15명의 꿈동이에 이어 2010년 꿈동이들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낸 정한나 사모는 "홀사모 자녀들도 제2의 셔우드 홀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미국구경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존감과 꿈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꿈땅프로젝트는 지난 2003년 남편의 암 투병 일기를 연재한 사모의 이야기를 인터넷 카페에

격보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편견이 더 큰 상처가 되었던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꿈에 심어주는 것이다.

개척교회에서 한 자녀당 \$3500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기도 가운데 신실한 후원자들을 보내주셨고 꿈동인들이 머물 미국 크리스천 가정들의 자원봉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무료로 꿈동이들을 돌봐 주었고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해 주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

남가주광영교회

우드 홀은 결핵전문가가 되어 조선을 살려낸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던 '목사님 아버지'를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하늘나라에 보낸 아들과 딸들이 못 다한 아버지의 꿈을 꾀다. 아버지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이다.

남가주광영교회(담임 정우성 목사)는 이런 꿈을 함께 꾸고 기도하며 6명의 홀사모 자녀들을 한국으로부터 초청했다.

이 자녀들은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미국 크리스천 가정에 홈스테이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했다. 바로 홀사모 자녀들을 위한 '꿈땅 프로젝트'이다.

비록 아버지는 안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 받으며 3주간을 보낸 자녀들은 자존감을 되찾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함으로 셔우드 홀처럼 나라와 민족을 세울 '꿈동인'들이 되어 돌아갔다.

2007년 11명의 꿈동이들과

"홀사모 자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아이들입니다"

서 접하면서 시작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의 사연을 보고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며 울기만 했던 정한나 사모는 강한 부담을 느끼며 기도하던 중 '부담이 곧 사명'임을 깨닫게 됐다. 무작정 홀사모와 자녀들의 생일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작지만 정성 가득한 편지와 마음을 담아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후원도 조금씩 하게 됐다. 그렇게 어 느덧 1년이 지나자 단순한 도움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다시 깨닫게 됐다.

정한나 사모는 "기독교100년사 책에서 우연히 셔우드 홀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이 자녀들도 한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홀사모와 그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충

님의 신실하심과 뜻하심을 발견한 정한나 사모는 내년 꿈땅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무릎을 꿇는다.

정 사모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땅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바로 꿈땅이 만날 때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그들은 못 다한 아버지의 꿈을 알게 될 것입니다. 5년, 10년 후 꿈동이들의 모습을 떨리는 마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2007년, 2008년에 이어 3차로 진행된 꿈땅 프로젝트는 남가주광영교회에서 후원한 6명의 꿈동이들 외에 22명이 함께 했으며, 총 28명의 참가자들은 3주간 미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활동을 하며 다양한 체험을 했다.

꿈땅 프로젝트: <http://www.goddream.org>

(박상미 기자)

[새벽강단 기 주님의교회 새벽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다

2007년 1월 14일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주일에 창립된 주님의교회(담임 김병학 목사)는 시작만큼 의미심장한 포부와 비전을 가진 교회다. 'LA동부지역의 관문이며 세계로 향한 교회'가 그것. 새벽예배에서 강력한 QT 훈련을 받고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주님의교회는 당찬 비전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본문> 로마서 11:1~12 1절 바로 바울자신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사용하심에 자기 자신을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행한 것을 보면 살아있다는 것이 말도 안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면... 객관적 예를 바울 자신을 들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엘리야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이요 답답함입니다. 신앙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죽을 형편이라고.

그런데 4절에서 7절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러해야 합니다. 7천대 1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7천배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수

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나쳤던 사람 중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드러난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나 간신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하여야 하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저 자기 신앙 근근히 유지하면서 사는 자나 일대일이다.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만 남았다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본문에는 엘리야가 송사했다고 나오는데 강하게 어필했다는 뜻입니다. 불평했다는 말이다. '하나님 어쩌면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토굴에도 숨어있고 집에도 숨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간 회복되어야 할 안목입니다. 다른 영혼을 인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여야 내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안목이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형편 없거나 변화되어야 할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5절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7천의 사람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보는 관점은 바로 이 안목이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는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세상에 묻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을 따라 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본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울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을 만나고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7절~12절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의인데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바로 이런 이방인들의 믿음에 자극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배된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한다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헌신하기만 한다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아야 합니다.

(박상미 기자)



김병학 목사

라스베가스 엘.림.연.합.교.회

이임목사: 박상철 목사, 취임목사: 임명진 목사

담임목사 이취임 예배 및 선교목사 파송예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미주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라스베가스 엘림연합교회는 2004년 5월 첫 예배를 드린 후 오늘까지 말씀사역과 지역사역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라스베가스 성시화 운동의 불을 지켰고, 청년사역을 위한 예스컴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학교를 통한 한국 말과 문화를 전수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많은 교회들이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엘림연합교회는 두 분 목사님의 이취임에 전 교우들의 만장일치로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박상철 목사님을 한국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 선교목사로 파송합니다. 금번 담임목사 이취임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일 시 : 2010년 8월 15일(주일) 오후 3시
- ▶ 장 소 : 엘림연합교회 (3500 E. Harmon ave., Las Vegas, NV 89121)
- ▶ 문 의 : 서창범 목사 (T.702-454-2525)

합동, 아이티 '재건'에 본격 나서... 현지서도 관심

▶ 비전센터 착공, 병원·학교·기업 입점 등 추진

예장 합동(총회장 서정배 목사)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아이티 재건사업이 비전센터(Haiti Vision Center) 착공식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합동 교단의 아이티 재건사업은 지진 발생 8개월째를 맞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업을 추진하며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이티는 지난 1월 강진 피해로 3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만명 이상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 예장 합동 교단은 당시 교단 차원의 모금운동을 전개, 30억여원을 모은 바 있다. 또 3차례에 걸친 긴급구호와 의료봉사, 4차례의 복구단 파견 등 지속적인 NGO 활동을 벌인 데 이어 이번 센터 건립으로 현지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비전센터 건립은 합동 교단을 비롯해 총회긴급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 김삼봉 목사), 교단 산하 세계선교위원회(GMS)가 지난해 설립한 NGO 해피나우(HAPPYNOW) 등이 함께 진행 중이다.

비전센터는 1차로 약 27억원을 들여 구호물자가 집중된 수도 포르토프랭스가 아닌 따바시 지역에 5층 총면적 1350평 규모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단과대학, 병

원, 호텔과 레스토랑, 커피하우스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내부시설과 교육 기자재들을 포함하면 공사비만 1백억원 가까이 된다. 이후 13억원을 들여 2차 650평에 대한 사업도 시작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착공식에도 서정배 총회장을 비롯해 남태섭 서기, 박원영 사무총장(해피나우) 등이 지진 발생지역인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따바레시를 직접 방문해 열의를 나타냈다.

착공식장에는 데오다 따바레시 장과 싸사안 부시장, 시청 직원들과 아이티 한인회 관계자, 유엔군 OCHA 유엔경찰팀, PKO 한국 평화유지단원들과 마병두 군목, 백삼숙 선교사, KOICA 송준권 담당자, 소나피공단 양희철 법인장, E-POWER 발전소 오태환 부장, 굿네이버스·기아대책, 따바레시 지역 목회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서정배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아이티 비전센터가 아이티 공화국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장은 또 "장자교단의 저력을 보여준 모금액은 목적함금이므로

정직하고 바르게 목적대로 아이티를 위해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며 사용처를 분명히 밝혔다.

데오다 시장은 "이 비전센터는 우리나라 대통령궁보다 규모가 있고 시설이나 가치 면에서도 최첨단 건물"이라며 "또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건축돼 우리 시의 상징물이 되는 것과 동시에 아이티 최고의 빌딩이 될 것"이라고 환영 사했다.

모금액 외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하귀호 목사(GMS 부이사장)는 합동측 교회들을 중심으로 아이티 선교위원회를 구성하려 노력 중이다. 하 목사는 "아이티는 GMS가 파송한 1백번째 선교국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이티 선교위원회에는 왕성교회(담임 길자연 목사), 만민교회(담임 하귀호 목사),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 광현교회(담임 김창근 목사), 총정교회(담임 옥성석 목사), 제자교회(담임 정삼지 목사), 시온교회(담임 김성길 목사),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현 목사), 안산동산교회(담임 김인중 목사), 인천제2교회(담임 이건영 목사), 의정부광명교회(담임 최남수 목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서울



예장 합동총회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 김삼봉 목사)가 아이티 재건 및 현지 지립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티 비전센터' 착공예배가 최근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따바레시에서 진행됐다. 이번 착공예배는 총회장 서정배 목사, 총회서기 남태섭 목사, 해피나우 박원영 사무총장과 데오다 따바 시장과 싸사안 부시장, 현지 교회 목회자 및 기업인, 굿네이버스, 코이카, 한국희망봉사단, 유엔군목단 등이 참석했다. ©해피나우 제공

나들목교회(담임 박원영 목사), 수영로교회(담임 정필도 목사) 등이 참여했거나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아이티를 수 차례 방문했던 박원영 사무총장은 이번 착공식에 대해 "아이티 현지에서도 이번 센터 건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센터는 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전'과 '서비스', '미션'을 주제로 건립되는 센터

아이티 비전센터는 크게 '비전(Vision)'과 '서비스(Service)', '미션(Mission)'이라는 세 가지 주제 아래 건립된다. 비전은 교육 분야로 교육을 통한 아이티 미래 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통한 기초지식

자원 형성과 전문화된 대학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한 지성과 영성을 가진 차세대 리더십을 키워 나간다는 아이티에 대한 교단의 비전을 담고 있다. 1층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2층에 중·고등학교, 3-4층에 대학교를 세우려 하고 있다.

'서비스'는 교육과 선교를 지원할 시설들을 센터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마디로 아이티를 위해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한 슈퍼마켓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등을 입점시켜 저소득층 이하 빈곤층에 교육과 의료, 음식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해피나우 관계자는 "이러한 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들과 연계해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해피나우는 1층에 슈퍼마켓과 베이커리

등을, 전망이 좋은 5층에 카페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놓고 있다.

'미션'은 지속적인 의료와 선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방침이다. 한국교회의 의료전문인 선교사들이나 중·단기 의료봉사자들과 함께 기초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대학교 내에 신학과나 채플 등으로 아이티 국민과 차세대 인재들에게 뿌리깊은 영성을 자라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3-4층에 선교사 가족이나 직원, 교수 등이 거주하는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등을 마련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해피나우 측은 학교가 지어지면 합동 소속 주요 목회자들을 교수로 활용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모두 국립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대용 기자)

“신자들 윤리 문제가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가 5일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도부 주최 정책포럼 강사로 나서 불신자 전도시 대처법을 소개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는 인식=전도를 하다보면 “불교

종교인들이 기독교가 그들을 무시한다고 보는 것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고,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오해하는 타종교인들과 맞붙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모와 조부모를 공경한다. 삼계명 중 대인관계에 관한 첫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제사 대신 추모예배를 드림으로써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춘다. 기독교가 조상을 무시한다는 건 오해에 불과하다.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한다는 인식=기독교가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한다는 생각은 예수를 믿으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과 맞물려 있다. 기독교가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인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스스로 끊으면 된다고 설명하면 된다.



발표하고 있는 권성수 목사. © 김진영 기자

◆교회 나가요 별수 없다는 인식=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교회를 비판한다. 기독교 신자들의 윤리 문제는 사실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 가운데 하나다. 신자들의 비윤리성이 기독교 신앙의 효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삶을 통한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다.

◆시간이 없다는 인식=불신자들은 항상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가느냐고 한다. 현세도 살기 힘들데 죽어서 가는 내세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세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인식=한 번은 전도가 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더니 그가 갑자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은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엔 대표 원리를 말해주면 된다. 월드컵에서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골은 한국 대표팀의 골이 된다.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곧 우리가 한 것이 된다. 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김진영 기자)

권성수 목사, 불신자 전도시 대처법 소개

신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아예 말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난 불교 신자인데, 왜 내게 기독교를 강요하느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이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종교는 무조건 무시해 버린다.' 타

령게 좋더라'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

◆부모를 무시한다는 인식=기독교인들이 조상 제사를 반대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불신자들 속에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조상을 무시하지 않고 부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미국 C&M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제는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2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3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온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최근 인물 사진 1장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기하성 여의도측, 임시총회서 하나됨의 중심 역할 시사

가입 문턱 낮추고 지분 나누기식 통합 거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 여의도)가 9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 358명의 대의원 중 311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헌법 중 교단 가입에 장애요소로 지적받던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고,

‘지분 나누기식 교단 대 교단 통합’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네 갈래로 나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하나되게 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기하성 여의도측은 특히 지방회와 총회 임원 자격에 출석교인 하한선을 폐지하고, 교단 가입시 교회 재산을 재단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조항 역시 삭제했다. 타고 단 목회자를 위해 편목제도를 부활시키고, 총회 임원선거의 경우 실행위를 거친 3인에 대한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부총회장·총무·서기·재무·회계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교단 명칭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변경하고 정식 등록했다.

기하성 여의도측은 9월 13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소속과 관

계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한 연합 기도회를 열고 함께 기도할 방침이다.

한편 기하성 여의도측이 독자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함에 따라, 여의도측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던 기하성 최성규 목사측과 박성배 목사측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또 이번 헌법 개정이 다른 기하성 교단 교회들의 여의도측 가입 움직임을 가속화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대용 기자〉

매일 2시간 기도하는 학생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RPS 저녁 집회에서 자기가 맡은 소명에 헌신을 다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라이즈업무브먼트 제공

신앙 좋은 학생이 공부도 잘 한다. 라이즈업무브먼트(대표 이동현 목사)가 야심 차게 내놓은 RPS(Riseup Planning School)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RPS 컨퍼런스가 지역별로 계속되고 있다.

RPS란 신앙과 학업, 생활의 균형을 위해 라이즈업이 제시하는 5가지 습관이다. 이는 자신만의 수면 패턴을 찾는 ‘수면 습관’, 개인 기도와 목상을 위한 ‘경건 습관’, 우등생들의 노하우가 담긴 ‘공부 습관’, 플래닝과 피드백 등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위한 ‘플래닝 습관’, 예의나 매너 등을 기르는 ‘태도 습관’ 등이다.

3일간의 컨퍼런스 중 첫 날은 오로지 ‘정체성’, ‘사명’, ‘태도’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이는 시행착오의 결과이기도 하다. 강남 지부를 맡고 있는 조휘우 목사는 “1학기 때 시행해본 결과 기존 라이즈업 소속 학생들은 ‘나는 누구인가’, ‘왜 공부를 하는가’ 등의 부분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성적이 주로 올랐지만, 성적을 올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등록한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잡아줄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컨퍼런스 때 확고히 잡아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 지부 컨퍼런스 첫째날 ‘미션 키워드’ 강의에 나선 문미정 간사도 시종 ‘정체성’, ‘사명’ 등의 단어

들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문간사는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며 학생 시절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서의 ‘공부’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학습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여러 공부법과 플래닝 습관 등을 명문대 출신 왕틴(라이즈업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들이 상세히 설명했다. 매일 저녁에는 이동현 대표가 인도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학업 과정에서도 이같은 ‘중심잡기’는 계속된다. 시험을 앞두고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므로,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을 다시 한번 잡는 것”이라며 “학생으로서 나의 사명, 공부를 하는 이유, 시험기간에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의 의미 등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는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컨퍼런스 이후 RPS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각 지역별 6명씩 한 대학생 멘토에게 매주 멘토링을 받게 된다.

멘토들은 학생들을 5가지 습관에 따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등록한 학생들은 매주 라이즈업 정기집회에 참석해 신앙훈련도 받는다.

〈이대용 기자〉

선교한국, 장기 선교 헌신자 지난해보다 늘어

가는 선교사 1천4백여명, 보내는 선교사 1천150여명 헌신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선교한국 2010 대회가 막을 내렸다. 6일 저녁 파송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 이지희 기자

국내 최대 청년대학생 연합선교대회인 선교한국 2010 대회가 1천 400여명의 장단기 선교 헌신자와 1천 150여명의 보내는 선교 헌신자를 배출하고 7일 막을 내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주제로 2일부터 7일까지 안산동산교회 등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학생 참가자 수가 예년(5천여명)에 비해 40% 가량 줄어든 3천여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장기 선교 헌신자수는 8백여명(이하 전체 참가자 중 27%)으로 지난 몇 차례 대회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교한국 대회 사상 최초로 선교 헌신자 가운데 장기 선교사가 단기 선교사(6백여명, 20%)보다 많았고, 보내는 선교사 보다 가는 선교사(장단기 선교사)가 많았다.

주최측은 “근래 수 차례 열린 대회에서 대회 5천여명의 청년, 대학생이 참가해 평균 750여명(15%)이 장기 선교사, 1천200여명(24%)이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2천여

명(40%)이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해 왔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 대비 가는 선교사 비율(47%), 특히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비율이 매우 높아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밝혔다.

선교한국 이대행 사무총장은 참가자 대비 헌신자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선 “대회 참가자들의 선교에 대한 필요(needs)가 매우 컸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으며, 이전 대회보다 짜임새 있는 대회 내용과 시스템을 또 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이 사무총장은 “전체 집회를 통해 선교의 큰 그림과 명제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초점을 두고, 6개 영역별 주제강의와 소그룹에서 선교 영역, 상황, 참여 방안 등을 세분화시켜 다루었다”며 “대회 헌신자들이 선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멘토시스템, 선교단체 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단체 대표, 선교 사역자 등과 많은 교감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헌신자 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된 멘토시스템으로 참가자와 선교 헌신자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대규모 선교대회에서 소홀하기 쉬운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눈높이에 맞는 선교 교육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에는 각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22명의 코디네이터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의 선교 헌신자, 선교 사역자 350여명이 멘토로 참가했다. 이들은 매일 10명 이하의 참가자들과 소그룹 모임을 갖고 주제강의 토론, 교제, 상담, 선교단체 박람회 방문 등의 활동을 했다. 선교단체 박람회의 한 부스 담당자는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단기 부스를 구경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멘토들이 참가자들을 적극 인도하여 준비된 자료들을 설명하고 상담해주는 일이 많았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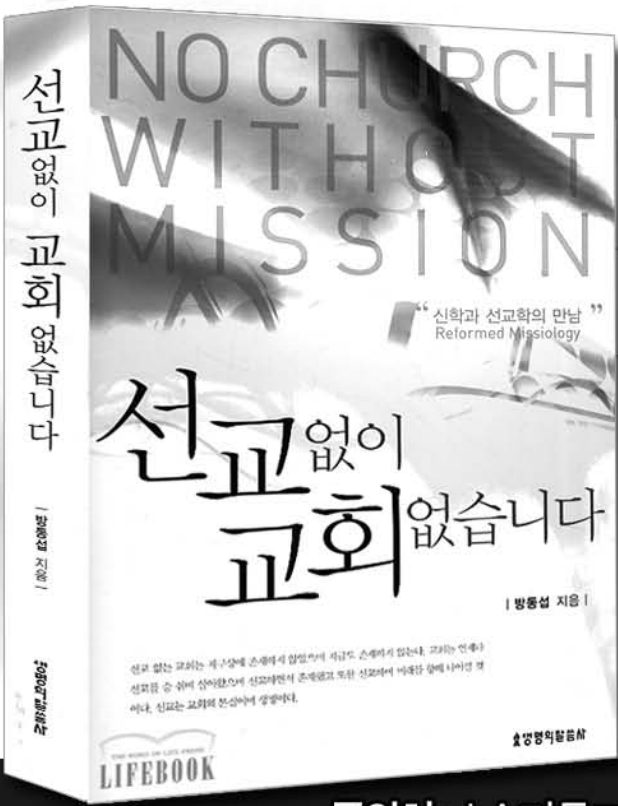
선교에 헌신한 참가자들을 위해 선교 전문가들이 헌신 이후 구체적인 삶을 주제로 한 강의와 패널토의를 진행한 것도 특이할 만하다. 대회 마지막 저녁집회에서 참가자들을 헌신시킨 뒤 바로 파송하던 기존 대회와 달리 이번에는 5일 ‘헌신의 밤’ 이후 6일 오전부터 가는 선교사 그룹과 보내는 선교사 그룹으로 나누어 헌신 분야별 모임을 갖고 선교단체들과도 보다 진전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선교단체 박람회 부스도 칸막이 크기를 줄이고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6일 저녁 파송식에서는 내려놓음의 저자로 유명한 몽골국제대학 이용규 선교사가 간증을 전한 뒤 WEC국제 동원대표 유병국 선교사가 저녁메시지를 전했다. 2년 단기선교사로 활동한 뒤 장기선교사로 헌신한 이용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교에 헌신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유병국 선교사는 “선교사의 길은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헌신의 길”이라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선교사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조직위원장 손귀연 목사(JDM 한국대표)는 “참가자들이 내린 선교적 결단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선교사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2년 뒤 선교한국 대회는 CCC가 주관한다.

〈이지희 기자〉

지난 1700년 동안 교회가 잘못 사용한 선교의 개념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사도 비율의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여 교회가 참으로 가이할 진정한 선교의 길을 제시한 혁명적인 저서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가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왜 이 책이 중요한가?

- “이 책은 강추가 아니라 강강추를 하고 싶은 책이다.” -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
- “선교의 종교개혁적 저작이라고 불려서 지나침이 없다.” - 유관지 박사(북한교회연구원(NCRC) 원장)
-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 - 김성욱 박사(총신대 선교대학원 교수)
- “선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책이다.” - 김학유 박사(합동신학대학원 교수)
- “21세기 신학계에 가장 의미있는 저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신경규 박사(고신대학교 교수)
- “누구나 선교를 말하려면 이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김홍만 박사(국제신학대학원 교수)
-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지고 가서 매년 1번씩 읽어야 할 책이다.” - 오준문 선교사(감보디아 선교사)
-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늘 길을 열어준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제공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 이길소 선교사(Global Vision Foundation 대표)
-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었다.” - 신종철 선교사(GMC 지구촌선교공동체 대표)

방동섭 목사의 화제의 신간!



● 구입처: LA기독교서점, 미주성산교회 T. 213) 975-1111, E-mail: dongsubbang@gmail.com

한국교회 8.15 대성회 뉴욕서도 개최

국가 향한 섬김과 나눔 실천 및 교회 연합 통한 부흥 기대

한국교회 8.15 대성회가 뉴욕에서도 개최된다. 뉴욕 대회는 15일(주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진행되는 한국교회 8.15 대성회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일어나 함께 생명·희망·평화를 노래하자'를 표어로 진행된다. 8.15 한국교회 대성회 조직위원회(한국) 측은 국권 피탈 100년·광복 65주년·한국 전쟁 60주년·4.19혁명 50주년·5.18 민주화운동 30주년으로 힘들게 얻은 자유가 혼란과 무질서로 치달으며 반목과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국가를 향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나아가 교회 연합을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해 부흥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뉴욕 대회는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8.15 한국교회 뉴욕 대성회 조직위원회(뉴욕)에서 주관, 명예대회장에 박희소 목사·방지각 목사·안창의 목사·이병홍 목사·한재홍 목사·황경일 목사·송병기 목사, 대회장에 장석진 목사·김중

덕 목사·신현택 목사, 부대회장에 김용의 목사·김원기 목사, 준비위원장에 이재덕 목사·이종명 목사, 진행위원장에 김영환 목사·김연규 목사가 위촉됐다.

한국 측 상임대회장은 이광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전병호 목사(NCCK 회장)·신경하 감독(기감 직전 감독회장)·이정의 목사(기성 전임 총회장)가, 대표대회장에는 김삼환 목사·서기행 목사가 위촉됐다. 한국은 15일 오후 4시(한국 시간) 시청 광장 및 지방에서 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시청 광장에 60만 명, 지방에서 30만 명, 해외에서 10만 명이 모여 전체 100만 명이 모이는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뉴욕 대회는 제1부 열망과 부름, 제2부 감사와 회복, 제3부 일치와 화해, 제4부 생명과 희망으로 진행된다.

제1부 열망과 부름은 김연규 목사(진행위원장)의 사회로 8.15 한국교회 뉴욕 대성회 개최 목적과 의의 선포, 주양장로교회 찬양팀의 찬양, 밀알합창단의 찬송, 대회 동영상 상영, 이병홍 목사(명예대회장)의 열망과 부름의 기도 순서



한국교회 8.15대성회 뉴욕 대회 포스터

로 진행된다.

제2부는 김영환 목사(진행위원장)의 사회로, 애국가 제창(박종윤 목사), 김종덕 목사(대회장·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회장)가 대회 선언, 김용의 목사(부대회장·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부회장)가 대회사, 김원기 목사(부대회장·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부회장)가 환영사, 신현택 목사(대회장·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가 축사, 안창의 목사(명예대회장)가 감사와 회복의 기도도 이어진다.

제3부 일치와 화해는 이재덕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장석진

목사(대회장·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장)가 설교, 송병기 목사(명예대회장)가 일치와 화해의 기도도 진행되며 제4부는 이종명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김종덕 목사(대회장·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회장)가 생명의 메시지 선포, 황경일 목사(명예대회장)가 주제 및 표어제창, 김연규 목사(진행위원장)가 8.15 한국교회 뉴욕 대성회 선언문 낭독, 한재홍 목사(명예대회장)가 생명과 희망의 기도, 화합의 장(코코장애이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방지각 목사(명예대회장)의 축도로 마친다.

(오상아 기자)

마이크 비클 목사가 직접 이야기하는 '아이합'

24시간, 1년 365일 끊임없이 찬양과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IHOP). 1999년부터 시작된 이곳이 알려지며 수년 전부터 많은 한인들이 찾고 있다. 이에 올 5월에는 한국인을 위한 컨퍼런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단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마지막 때 기도로 준비하는 공동체라고 평가한다. 대표 마이크 비클(Mike Bickle) 목사로부터 아이합에 대해 직접 들었다.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마이크 비클 목사. ©아이합

-아이합의 24/7 기도 운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는 전도가 꾸준히 늘어나도록 많은 나라의 다른 여러 교단과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 지상 대명령을 위한 기도가 선교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고 믿는다.

-아이합은 어떤 사명을 갖고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가.

전도(데살로니가후서 3:1), 억압 받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누가복음 18:7-8),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 사하심을 통한 문화의 변혁(마태복음 28:19)

-기도 운동을 하는 단체나 교회도 많은데 아이합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조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요소, 그리고 첫번째 계명이 이야기하는 바 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요소를 가진 찬양에 젊은이들이 깊이 매료된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교회는 기도로 50년 이상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도록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았다. 한국 교회의 역사와 갈망은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연결된다.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경배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왜냐하면(경배는) 열방을 이끌 그들의 영적인 운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인들의 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인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금식, 선교와 기부에 대한 특별한 헌신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잘 알

려져 있다. 서구 세계의 많은 사역의 역사가 뒷걸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면과 헌신의 역사가 기도와 금식, 희생,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아이합에서 이야기하는 '사도적 리더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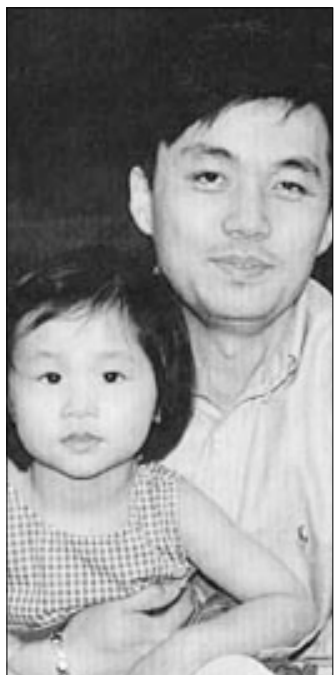
'사도적'이라는 단어를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사용한다. 사도 교회 또는 신약 교회의 교리, 삶의 방식을 닮고자 하는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지런하고, 헌신적이고, 핍박을 견디고자 하며, 전도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산상수훈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이것이 나의 사도적 리더십에 대한 견해다.

-아이합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교회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신약의 힘, 순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임무를 완성할 때 오는 핍박 가운데 연합함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대환란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순결함을 경험할 것, 종국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때 사람들이 살아있고 예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내 의견이다. 그것은 2세 또는 20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에 대한 성경의 정조를 살펴볼 때, 주께서 오실 세대에 근접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윤주이 기자)



9.11 테러로 숨진 강순구 씨가 딸과 함께 했던 단란한 한 때. ©강성순 안수 집사

9.11 테러의 아픔 아직 잊지 않았는데...

▶ 9.11 테러 유가족 강필순 권사 안타까운 심정 드러내

9.11 테러로 무너져 내린 세계 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 부지(그라운드 제로)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 15층 규모의 메가 모스크가 건립되는 것이 지난 3일 뉴욕시로부터 허가됐다. 이에 지난 9년 전 9.11 테러로 아들을 잃은 강필순 권사(고 강순구 집사의 어머니, 프라미스교회)는 "그라운드 제로 옆에 버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권사는 "터키도 예전에는 99% 기독교 나라였는데 지금은 다 바뀌어 무슬림 천국이 됐

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세워놓은 나라이나. 영국도 무슬림에 먹혀들 어간다. 무슬림이 뉴욕도 차차 다 점령하게 될 수 있다. 뉴욕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진다 는 것이 무섭고 안타깝다. 너무 속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필순 권사는 "세월이 가도 잊히지 않는다.우리 마음이 되봐야 하는데..."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미국 보수주의단체 '미국법정의센터(ACLU)'는 그라운드 제로 옆 모스크 건립안에 이

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4일 맨해튼의 한 주법원에 냈다.

ACLU는 1990년 팻 로버트슨 목사가 창설한 기구다.

ACLU는 "위원회가 현재 부지에 있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정치적으로 성급히 결정했다"며 "모스크 논쟁은 종교의 자유와는 무관하다. 이 건물은 미국 자본주의 발전과 9·11 테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상징물로서, 이 자리에 모스크를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오상아 기자)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213-380-0853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영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 EM 오후 1:45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종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8:0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중앙선교회
담임: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2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문터문 4기 Crocker St.)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45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45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임마누엘헬로스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교등부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EM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일부무임)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45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기도메일) 오후 7:00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맹목적 교회성장에 지친 목회자 치유 필요

이동원 목사 초청, 2010년 전국 목회자 세미나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회장 류복현 목사) 목회부에서 주최한 2010년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9일(월)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조지아 심슨우드감리교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상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75명의 목사와 사모가 참석해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의 강의를 귀를 기울였다.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영성의 길’ 후속강의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근래 15년 사이에 부각되고 있는 ‘내적치유’라는 단어의 의미와 기독교 역사 속 영성치유의 시작과 발전에 대해 정리하는 한편, 목회자 자신이 내적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영성치유 강의는 ‘자아상의 치유’ ‘성인아동의 치유’ ‘유산된 꿈의 치유’ ‘학대와 중독에서의 치유’가 다루지며, 영성 큐티 강의는 ‘영성 큐티로의 초대’ ‘영성 큐티

의 틀 익히기’ ‘영성 큐티의 깊은 곳으로’ ‘영성 큐티 지속하기’로 진행돼 ‘치유 받은 자아가 어떻게 영적 치유를 이어갈 수 있는지’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게 된다.

첫째 날 강의에서 이동원 목사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내적 치유는 ‘영적 치유’ ‘영성 치유’로 불리는 부분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도울 때 기분이 되는 내용이었다. 영성 치유로 가는 길은 ‘침묵’ ‘나눔’ ‘기록’ ‘기도’가 있다”고 참석자들을 영성 치유의 세계로 초대했다. 침묵 침묵이 왜 중요한가.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 자신을 망각하고 잃어버린다. 어떤 의미에서 소음은 도피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잃어버린다. 어딜 가도 소음이 꼭 차 있어 많은 현대인들에게 침묵은 오히려 이방인이다. 갑자기 침묵을 하려고 하

면 웬지 낯설어 이를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면 자신을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한다. 나눔 나눔은 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서로가 거울이 되어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안면이 있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2명, 혹은 3-4명의 짝들과 나눈다. 물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서 오는 치유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기록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벌써 안다고 생각하는데 쓰다 보면 갑자기 나 자신을 발견한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치유해주는 시간이다.

이어 ‘자아상의 치유’에 대해 언급한 이동원 목사는 “20세기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성장’이었고, 이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한국교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성장 운동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세계 교회는 맹목적 성장의 역기능적 결과를 보면서 ‘

얼마나 질적인 성숙이 있었나?’를 자문하기 시작했다. 이는 교회와 교회 사이의 과도한 경쟁, 동역자를 경쟁자로 봐야 하는 아픔들, 무리한 성장에 따른 상처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이 된다는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도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성장이 자연적이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목회자가 건강해져야 한다”고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짓자아를 내려놓고 참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되물어야 한다. 목회자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붙들어야 하며, 이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확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강의 중간 중간 침묵의 시간, 나눔의 시간도 가졌으며, 강의를 마친 뒤 다 함께 일어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박현희 기자)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도 목사)가 주최하는 워싱턴지역복음화대성회가 8월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율네이션스교회(담임 홍원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성회 강사로는 전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김상현 목사(부평감리교회)가 초청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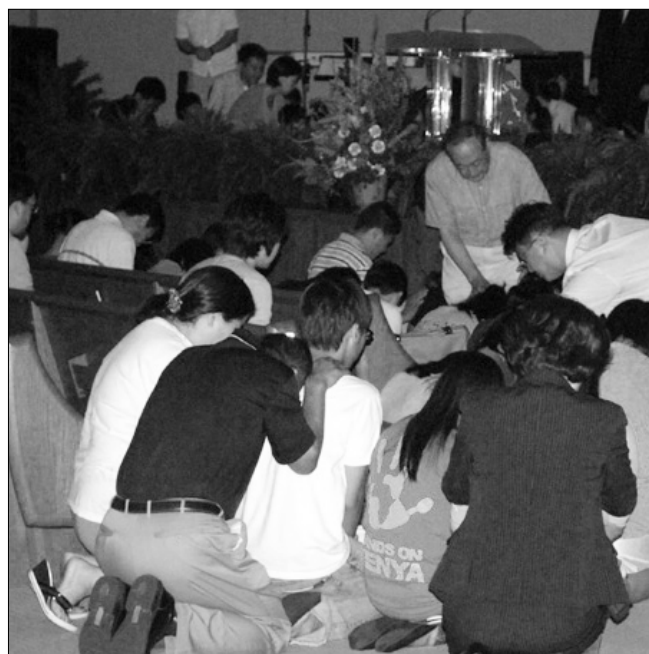
첫째 날 김 목사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전도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전도 이야기에선 결코 간단하게 넘길

스 5대가 모자랄 정도지만, 전도 하러 가자고 하면 12인승 붓고차 1대도 채우기가 어려운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힘이 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늘 나간다”는 김 목사의 전도 이야기는 거침이 없었다. 진정으로 전도가 생활화된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됐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워싱턴 지역에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게 됐다.”며 “성회 마지막 날까지 전도에 대한 노하우들을 최대한 쏟아놓

기도로 무장하고 ‘백 투 스쿨’

본격적인 ‘백 투 스쿨’ 시즌이 다가왔다.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학교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딘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직 어리지만 한 아이들이 잘



개학 앞두고 교회 곳곳에서 특별 새벽기도회

해 낼 수 있을까? ‘공부하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염려되지만 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자라난 키만큼이나 방학 동안 수련회, 단기선교, 교회 봉사 등으로 부쩍 성장한 신앙이 분주하고 세속적인 학교생활 가운데 흔들리지는 않을까 한 가지 걱정을 더하게 되는 것이 자녀의 개학을 앞둔 모든 가정의 모습이다.

방학 동안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새 학기 학업과 신앙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백 투 스쿨’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토요일(7일)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기자는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를 방문했다. 이날 초등부를 맡고 있는 지니

조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선교사의 자녀로 어린 시절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다니면서 개학 전날 겪어야 했던 설렘과 두려움,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져 모든 게 일상적이고 평범해 지던 경험을 영어와 한국어로 전한 조 전도사는 “장터에 나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개학처럼 늘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것에는 흥미를 잃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가장 지루한 시간에도,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신다. 이번 학기 중에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정인수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했다. 특히,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앞으로 초청해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이 함께 안수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박현희 기자)

3일간 워싱턴지역복음화대성회 성황

수 없는 뼈 같은 메시지들이 녹아 있었다. 그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고 있는지, 구제 사역에는 열심이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전도에는 그렇게 열심이였는지, 전도가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해보지도 않고 살고 있는지 양심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강하게 도전했다. 김 목사는 “재미있는 유머 하나만 들어도 열심히 전하는 사람,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함께 먹자고 데려가려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체험한 자들에게 얼마나 전하려고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목사는 “구제사역을 위한 20kg짜리 쌀 한 포대는 쉽게 나르면서 200g짜리 전도지 100장은 엄청 무겁게 여긴다. 교회에서 놀러가자고 하면 40인승 관광버

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째 날 성회는 김인호 목사(후랜코니아교회, 교협 증경회장)의 사회, 율네이션스교회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 김성도 목사(워싱턴교협 회장)의 인사말, 홍원기 목사의 기도, 진이 집사(워싱턴교협 부회장)의 성경봉독, 김상현 목사의 설교, 최순철 목사(워싱턴 해오름교회)의 헌금기도, 박시몬 목사(후랜코니아교회)의 특별찬양, 김범수 목사(워싱턴교협 서기)의 광고, 신동수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워싱턴지역여성교회연합회에서 안내 및 헌금위원을 담당했다. 둘째 날은 ‘누가 전하는가?’(행 20:20-24), 셋째 날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행 16:25-32)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해졌으며, 9일(월) 오전 10시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된다.

(조요한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쁘신 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며 상금이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8월 16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회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리미엄 갈비상,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 이사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를... 항상 정성을...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치과 보조사,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3-6개월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어음학기 속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삼성이 하면 다음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금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월즈 하실분 모집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펜스/자동차,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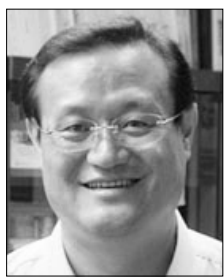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정우성 칼럼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가는 길에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가는 길에 내가 통로가 된다면, 교회가 부흥하는 데 내가 통로가 된다면, 직장에서 변창하는데 내가 통로가 된다면, 가정에서 행복의 통로가 내가 된다면, 사회에서 믿음의 통로가 내가 된다면,

통로는 통하는 것입니다. 통하면 시원합니다. 살아 남습니다. 행복합니다.

한국정부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국민들과 통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통로가 되 주겠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복합까요? 목사와 성도들과 잘 통하면 얼마나 교회생활이 재미있을까요?

통한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최대 욕망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목숨까지 걸지요.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답답합니다. 말은 하는 것 같으나 속마음은 다르게 나타나지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해야 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아플 통)합니다. 통을 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답이 있으면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요? 궁하면 통한다. 굶주리면 통합니다. z에배에 굶주리면 은혜가 통합니다.

말씀에 굶주리면 예수가 통합니다. 사랑에 굶주리면 사랑이 통합니다. 굶주린 사람만이 빵의 맛을 알 수 있듯이

축복 파이프의 인생, 행복 파이프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조카 롯을 적군에서 구출하여 소돔으로 돌아 왔을 때 살렘왕 벨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벨기세덱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자신까지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없습니다. 서로 서로 살면서 관계가 비뚤어지면 그 때부터 불행하고 고통스럽지요.

인생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통한다는 것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들과 서로 잘 통하면 얼마나 행

복할 수가 없지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국가에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면 통하지 않습니다. 가슴의 사랑이

막힙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막힙니다. 죄가 개인에 들어오면 영혼이 막힙니다.

죄를 해결해야 통합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14:6)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성령님과 통합니다.

통에 굶주린 사람은 통을 살찌울 수가 있어요. 예수께 굶주린 예수가 통합니다. 예수님과 통한다는 말이 구원받아야는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면 기적이 찾아오지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이 통하는 것입니다.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2001년 아마존 서점 최고의 과학책으로 선정된 스티브 존슨의 <이머전스(emergence)>라는 책을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버섯 흰개미는 4미터나 되는 탑 모양의 집을 만든답니다. 4센티미터가 아니라, 4미터입니다. 그냥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장치까지 있고, 애벌레에게 먹일 버섯을 기르는 방도 있답니다. 대단하지요? 물론 개미 한 두 마리의 작품이 아니라 개미 집단이 달라붙어서 만든 겁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말이 있듯이, 한 마리 한 마리의 능력은 보잘 것 없지만, 수많은 개미가 모이면 이런 엄청난 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전도서 4장12절의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에 딱 맞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협력, 협동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도 바로 공동체의 강력함을 나타내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입니.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한 고백 '너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 말은 한 마리도 하면 '너는 곧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2:24절에서 부부의 의미는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만 하나입니까? 우리 한 민족의 힘은 바로 '하나된 민족'입니다. 같은 혈통이라는 사실

기 때문입니다. 왜 보잘 것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자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없었지만,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실만큼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성격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겁니다. 요사이의 이혼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면, 당당하게 "사랑이 없어서요"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신데, 짧거나 길거나 한 세월을 함께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사랑이 없어서요"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깎아 내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다시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협력의 힘을 믿읍시다. 사랑하면 협력합니다.

협력의 힘-사랑에너지

한 몸을 이루시고, 서로의 존재가 구별되지 않으니, 가장 강력한 사랑의 존재인 동시에, 사랑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너와 나'라고 하는 두 개의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 이런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모습을 인간에게도 심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따로 만드시지 않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게 하셨습니다.

왜 굳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온전히 하나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이지만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정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강력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베냐민을 붙잡아놓겠다고 형제들에게 말하자, 유다가 요셉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으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말에서 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강력한 힘이 되어 자식을 돌보고, 양육합니다. 부모의 사랑의 힘 그것은 자식과 하나 되었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목사와 조족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검은 양복을 즐겨 입는다. 둘째, 활동 구역이 있다. 셋째, 피 흘리는 얘기를 자주 한

상을 반영한다. 못된 권세자들이나, 정치인들을 저등동물이나, 비판 받는 대상으로 재미있게 풍자하면서 가슴에 눌린 응어리를 푸는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죽 목사를 견줄 때가 없었으면, 조족이나 거지에게 비교했을까 싶지만, 거기에는 성도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푸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 때로는 성역이라는 금을 쳐 놓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현실감을 잃어버린 리더로 비쳐지기도 한다. 교회가 커지면 목사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있듯이, 소통이 없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 같다. 낮아지고, 섬겨야 할 목사가 '존경'이라는 이

목사와 조족

다.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인사성이 밝다. 둘째,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셋째,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있다.

이 조크를 하면 목사가 제일 많이 웃는다. 그리고 성도들이 맞장구치면서 박장대소한다. 어떤 목사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웃는다. 한참 웃다보면 약간 씩씩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씩씩하면서도 정곡을 찌른 느낌이다. 대개 유머는 당시의 사회

로 너무 높아져서 고개가 뻗뻗이 굽어났다.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해본다. 노크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리는 내 사무실처럼 마음 문을 열고 사는 사람, 성도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눈물의 사람, 아파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할 수 있는 기도와,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는 말씀선포와 더불어 그 길을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국 사람들의 평생소원!!!

미국대륙 횡단 여행

오는 7월16일 20박21일 여정으로 로스앤젤레스 출발!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3,000달러.

LA - 레이크호 - 솔트레이크시티 -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 옐로스톤 국립공원 - 데블스스타워 국립모뉴먼트 - 러시모어 국립모뉴먼트 - 크레이지호스 - 배들랜드 국립공원 - 시카고 - 나이아가라 폭포 - 허버트데 - MT - 뉴욕 - 워싱턴DC - 루레이동굴 - 세인트루이스 -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 덴버 - 신의 정원 - 로알고지 - 블랙캐년 - 아이치스 국립모뉴먼트 - 캐넌랜드 국립공원 - 모뉴먼트밸리 - 레이 파월(크루즈) - 플래그스태프 - 피닉스 - 치리카후아 국립모뉴먼트 - 통스톤 - 사구아로 선인장 국립공원 - 알고도네스 모래사막지대 - 데저트 핫스프링스 - LA

- ★ 7월16일 LA를 출발, 뉴욕을 최종착지로 하는 9박10일 여정의 서-동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500달러.
- ★ 7월25일 뉴욕을 출발, LA를 최종착지로 하는 12박 13일의 동-서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800달러.

관광 가이드에게 하루 10달러씩 통상 내게 되는 팁 없음!
 대륙횡단 여행에 17차례나 나선 여행 전문가이자 LA 여행클럽의 간사 지미 김씨가 이번 대륙횡단 여행의 인솔자로 나서게 됩니다!

28개 40도시 17국립공원 50명소 1만 Mile의 대장정.
전 일정 Bus로 이동하는 미국식 배낭여행.
 여행 동호회 'LA 여행클럽'이 이지 LA투어와 손잡고 올여름 대륙횡단여행에 나섭니다.

문의: (213) 388-0777 또는 이메일 latravelclub@hotmail.com
 (EZ LA 투어 문의전화는 미 서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 4055 Wilshire Blvd, #LLA3, Los Angeles, CA 90010 USA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문을 하고 또한 잔인하게 죽였다. 세계의 역사에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가 많지만 일본 만큼 잔인한 나라는 없다. 그러했기에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의 감격은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만큼이나 컸다. 새장 속에 갇혀 36년간 목숨만을 유지했던 새가 철문을 나왔을 때 높이 그리

을 기뻐 혼란과 역경을 겪게 했다. 그러나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앞으로 전진하다 6. 25라는 남침을 맞게 되었다. 그 때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나라들(UN)의 도움으로 다시 위기를 넘기고 오늘 의 자랑스러운 한국이 된 것이

크 것이다. 개인에게도 3가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시작은 해방이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나오는 자신의 욕심에서 해방되는 일이다. 이 욕심은 땅 보다 더 뜨겁고 한계가 없는 것이다. 그 욕심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많은 경우가 돈이고

가 있을 때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권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갈래 길에서 자기의 유익 쪽으로 기울어진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선택하고 정의를 남을 위한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기의 본능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오죽 했으면 성자 바울은 경교하

아라는 곳에 한 미인이 있었다.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육체를 가지고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6 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 많은 남자, 인기 있는 운동선수, 권력가, 잘생긴 남자, 존경 받는 남자와 살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더 느끼게 되었고 후에는 아주 무능한 남자와 살았다는 어느 신학자의 해석이다. 그녀는 이모저모로 욕심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욕심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주어진 자유로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며 독립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다.

오는 8.15를 기하여 해방 자유 그리고 독립을 다시 되새겨본다.

8. 15 해방과 자유 그리고 독립

고 멀리 날아가듯 그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던 한 민족은 자유를 얻어 언론이 되살아남은 물론 닫혔던 교회가 문을 다시 열고 정당이 생겨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한 나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세워 나갔다.

그러나 그 와중에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북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남쪽의 적색분자들은 정부를 뒤엎으려는 일에 총력

다. 즉 해방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독립국가로 세계에 우뚝 선 한국은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 이북의 도발을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서민들의 질적 생활의 향상을 꾀하며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국가란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이웃 나라와 더불어 상부상조할 때 그 의미가

다음은 쾌락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권력 명예 성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욕심은 자석처럼 가까이 갈수록 끌어당겨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가도 다시 마귀에게 끌려가서 헤어지지 못 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본다. 그래서 성메시 말라'고 경고 한 것이다. 다음은 자유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기회

기를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로 방종 하지 말고 남을 위한 봉사'의 기회로 삼으라(갈5:1-13) '고 하셨을까.

끝으로 독립은 타의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확실한 목표인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일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힘을 묶어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 사마리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공기 탑승을 위해 분주한 여행자들이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적지'와 '여행목적'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땅에 태어난 존재치고 목적 없이 태어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인생은 여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종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앞에 스스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공항을 들어설 때마다 오고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큼지막한 가방을 끌고 어깨에는 소형

다면 수상히 여기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한 가지 목적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 최종목적지는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혹은 인생의 목적과 최종 목적지에 대하여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인생목적과 최종 목적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십시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며 이

“여행을 할 때마다 떠올리는 단어”

가방을 짊어지고 탑승 여객기에서 타고갈 항공기에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을 끝낸 사람들은 항공기 탑승을 위해 길게 검 색대앞에 줄을 서있기도 합니다. 귀가 얼얼할 정도로 왈차지 절한 공항에서 보게되는 수많은 여행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향

여행을 위해 큼지막한 여러 개의 가방을 들고나와서 막상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위한 여행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여행자가 있다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분명한 여행의 목적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숨기는 여행자가 있

번 여행의 목적과 최종 목적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 탑승권으로는 제가 목적지로 삼는 곳을 향한 항공기만 탑승해야 합니다. 똑같이 인생의 목적과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법률 칼럼



유재인 변호사
유재인합동법률사무소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기를 계획하고 사업 운영이나 취업을 하며 자녀들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이

취업 이민 영주권 3순위의 숙련공 부문은 학사 학위 취득자나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맞는 해당 분야에 재정적인 자격이 있는 스폰서 업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이민 영주권 3순위의 숙련공 부문의 2010년 8월 영주권 문호는 2004년 6월 1일까지 개방되어 있다.

우선 일자의 적용을 받는 취업 이민 영주권 부문은 노동청 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영주권 문호의 우선 일자는 노동청 허가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취업 이민 영주

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 가 접수되기 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구제 방안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을 시작할 수는 있다.

취업 이민 영주권의 절차는 노동청 허가서인 PERM의 신청 (임금 조사 => 광고 => 노동청 허가서 접수) 취업 이민의 이민국 허가서인 I-140 신청 영주권 문호의 우선 일자가 되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의 접수 신청 순으로 진행 된다.

취업 이민 영주권 3순위의 또 다른 부문인 숙련공의 영주권 신청 절차는 숙련공 절차와 같지만 우선 일자는 현재 2002년 5월 15일까지 개방되어 있

취업 이민 영주권 3순위 '숙련공'

필요하게 된다. 과감한 투자 이민이 아니면 취업 이민 영주권이나 가족 이민 초청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해 줄 수 있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체가 필요하다.

권 신청 할 때는 245(i) 수혜자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불법 체류인 경우에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면 조항이 발표 될 때 까지 취업 이민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모험이지만 3순위

다. 직계 가족 중에 자신을 이민 초청 할 수 있다면 취업 영주권과 함께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이는 만약 취업 이민 신청 중에 잘못되어 거절당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가족 이민 영주권의 우선 일자를 기다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Advertisement for L.A. AUTO 정비 (L.A. Auto Maintenance). Includes a list of services: Smog Check,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전기계통, 30/60/90K Service, A/C Service. Contact info: 24hr 213.247.6657,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Also mentions ASE, GM DAEWOO, and insurance/rent car services.

■ 본지 협찬, 전도에 대한 열정 심을 것으로 기대

미 서북부지역 두부전도왕 초청 집회

두부전도왕으로 잘 알려졌으며 낙도 선교를 위해 온 몸을 던져 헌신하는 반봉혁 장로(순천 왕지감리교회)의 미 서북부지역 부흥성회가 오는 8월 12일(목)부터 9월 19일(주일)까지 열린다. 이번 부흥성회는 본지가 협찬한다.

두부를 전하며 복음을 전해 두부전도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 반봉혁 장로는 25년 전 철야 집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나를 통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서원을 했다. 현재 반 장로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약 2,500여명이며, 특히 반 장로를 통해 우상이 많고 무속적 신앙심이 깊은 낙도 15개 섬 중 9개 섬이 100% 복음화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

또한 왕지감리 교회 뒷편에 자리한 비래마을은 주민 가운데 예수를 한 명도 믿지 않고 전과 29범, 4범, 5범 등이 즐비했으나 반봉혁 장로가 6년 전부터 두부와 빵을 갖다 주며 전도하기 시작한 결과 24가정 중 20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반 장로는 생활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낙도에서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 식료품과 기타 기자재는 물론 가스 공급이 어려운 낙도에 가스통까지 짊어지는 사랑으로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 사정이 어려운 섬 주민들을 위해 목욕 시설과 빨



낙도 방문에 감사해 하며 우경철 목사의 손을 잡은 주인. ©낙도선교회

래 시설을 갖춘 18톤짜리 배를 갖추고 섬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연합해 팀 사역을 펼치고 있다.

구령의 열정으로 땀뿜 뭉친 두부전도왕 반봉혁 장로는 "전도는 의무이다. 하지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늘로 가는 순간까지 전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말한다.

반 장로는 2003년 1월 목욕탕에서 두부 공장 사장을 전도한 이후 매주 200모씩 두부를 공급받게 되며 두부 전도를 시작했다. 이후 매 주말 한주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부와 빵을 들고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찾아가는 낙도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수리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부엌에 쌀을 놓고 오는 일도 함께 한다.

낙도 선교를 하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이었다. 6년 전 파도가 너무 세 엔진이 붙어 5-6시간을 배가 떠내려가 일본 해상까지 넘어갈 뻔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번은 5만 톤 위 선박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작년에는 5시간 거리의 광도에서 2-6m가 되는 큰 파도를 만나 배가 부서지며 회원 한 명이 바다로 떨어지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낙도 선교는 중단되지 않았다.

죽음을 무릅 쓰고 계속되는 반 장로의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에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오물을 던졌

던 낙도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도 참석하게 됐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 할 것이라는 반봉혁 장로는 "미국교회가 낙도를 선교지로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직접 가지 못해도 기도와 물질로 낙도 선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 소개〉

순천왕지감리교회 장로, (주)승주의약품 이사, (사)좋은 모임 공동대표, 광야전도학교 전임강사, 한영대학교 외래교수, 신바람낙도선교회 회장

〈미주 집회 일정〉

8월 12(목) ~ 15(주일) 앵커리지 열린문 교회 (유재일 목사 시무)
8월 20(금) ~ 22(주일) 웨드럴웨이 중앙장로교회 (조봉환 목사 시무)

8월 27(일) ~ 29(주일)까지 평강장로교회 (박은일 목사 시무)
9월 1(수) ~ 2(목)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문장선 목사 시무)

9월 3(금) ~ 5(주일) 밴쿠버헤브론장로교회(송철웅 목사 시무)
9월 8(수) ~ 9(목)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장윤기 목사 시무)

9월 10(금) ~ 12(주일) 시애틀 베다니교회 (최창호 목사 시무)
9월 17(금) ~ 19(주일) 뉴비전교회 (천우석 목사 시무)

문의 425)943-0761 seachdaily@gmail.com

〈김브라이언 기자〉

치밀한 사전 준비, 유스부 자원자 훈련시켜 참여



OIC(One in Christ) 베이지역 2세 어린이 연합캠프가 8일부터 11일까지 레드우드 얼라이언스 캠프에서 열렸다.

올해로 두번째로 개최된 OIC(One in Christ) 베이지역 2세 어린이 연합캠프가 8일부터 11일까지 레드우드 얼라이언스 (Alliance Redwood Conference Grounds) 캠프에서 열렸다.

베이지역 OIC 어린이 연합캠프는 북가주 한인교회 2세사역자들이 자발적인 섬김으로 북가주교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합캠프 특징은 북가주 2세사역자들이 전문사역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준비했으며, 유스부 자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100여명 어린이에 50여명의 사역자 카운셀러, 멘토가 참가했다. 오전에 예배드리며 오후에는 각종 게임 프로그램과 저녁 캠프파이어, 예배를 드렸다.

북가주 2세사역자들이 이번 어린이 캠프를 위해 지난해 연합캠프를 통해 LA전문사역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임상명 목사는 "2세사역자들이 저마다 талан트를 발휘해 각 프로그램을 맡아 섬기고 준비해왔다"며 "지난해 LA 전문 어린이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100여명 어린이에 50여명의 사역자 카운셀러, 멘토가 참가했다. 오전에 예배드리며 오후에는 각종 게임 프로그램과 저녁 캠프파이어, 예배를 드렸다.

북가주 2세사역자들이 이번 어린이 캠프를 위해 지난해 연합캠프를 통해 LA전문사역자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임상명 목사는 "2세사역자들이 저마다 талан트를 발휘해 각 프로그램을 맡아 섬기고 준비해왔다"며 "지난해 LA 전문 어린이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했다"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웨드럴웨이 새교회 장학금 수여식 열려

지난 8일 웨드럴웨이 새교회(담임 원호 목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지역 한인 학생 가운데 5명을 선

한인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로도 부각됐다. 웨드럴웨이교회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지역 한인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커뮤니티를 향해 흘러가

발해 1천 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생 선발에서는 본교회 학생 뿐 아니라 타 지역교회 학생들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열어둬으로써 장학생 선발의 폭을 넓혔고, 교회가

이날은 새교회 성도들과 학부모 및 친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박영민 웨드럴웨이 시의원과 고경호 웨드럴웨이 한인회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경과보고에 따르면 모두 19명의 한인 학생이 지원했으며 이들

은 모두 학업과 예체능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여 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저스틴 우 군, 다니엘 리 군, 조셉 박 군, 줄리 장 양, 자넷 이 양이었으며, 장학위원회는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고르게 선발했다.

새교회는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장학증서와 1백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해 참석 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원호 목사는 "이번 장학사업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장학사업이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며 각 교회와 사회단체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박영민 의원은 "시애틀 지역 사회를 위해 장학 사업을 실시해 감사하고, 자라나는 후진 양성에 대한 이런 관심이 미국을 이끌어갈 한인들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교회를 격려하고, 이날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들에게 미국과 세계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라고 권면했다.

고경호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장학제도를 만든 웨드럴웨이 새교회에 감사를 전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오늘 받은 선물을 사회에 기쁨으로 환원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웨드럴웨이 새교회 장학생 선발 기념 단체 사진

www.rosehills.com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원하신다면...

품격있는 명품 장례식- 로즈힐 장례서비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 서비스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며 로즈힐만의 100여년 전통과 노하우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한인 장례 매니저의 친절함 맞춤 서비스
-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6개의 아름다운 채플
- 종교에 따른 다양한 예식 • 저렴한 장례 관 가격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본사(한국어 직통) | 1-888-848-8707 브레이크점 | 562-809-7027
세인트스점(한국어문의) | 1-877-767-8850 장의 & 장례보험 | 562-809-702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p> <p>TEL : 562-926-1023, 4691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p>	<p>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p> <p>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p>	 <p>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p>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p>
 <p>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p> <p>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p>	<p>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ional Education College</p> <p>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8월 16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p> <p>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p>
 <p>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p> <p>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p> <p>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p>	<p>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p> <p>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p>	<p>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p> <p>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p>
<p>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p> <p>(장학금을 지급함)</p> <p>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p> <p>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p> <p>TEL : 213-381-7755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p>	<p>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p> <p>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p>
 <p>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p> <p>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p>	<p>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p> <p>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p> <p>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p>	 <p>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p> <p>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p> <p>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p>

알뜰한 우리 영아의 선택!

30일 환불보장

서두르세요! 8월 1일 ~ 8월 15일 가입자에 한함!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패밀리 알뜰 플랜
\$4.99/라인

우리집 전화비 고민해결!



가격, 품질, 혜택 모두 만족!

- 미국 전화번호 1개 + 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착신 무제한 무료!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기존번호 이전 가능!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이용!
- 전세계 아이트코비비 고객간 무료통화!

아이 초리아 넘버를 잡아라!

지금 가입하셔서, 나만의 한국번호로 한국과 무제한 통화하세요!

iTalkBB 사업자 모집

한인 출일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 로컬/장거리/국제전화 사용이 많으세요?

<p>GLOBAL PLAN 글로벌 플랜</p> <p>\$9.99/월, TAX 포함 *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24.9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 한국포함 27개국 무제한 국제 전화 + 마이크로아날로그 무료 아이트코글로벌 무료 개통비(\$29.99) 면제 	<p>GLOBAL PLUS PLAN 글로벌 플러스 플랜</p> <p>\$14.99/월, TAX 포함 *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34.9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	---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www.Korea.iTalkBB.com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트코비비 아이트코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 가격 보장"**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E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8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1년도 최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2YR STK:049539



8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 | | |
|---|--|
|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 2007 BMW 328XI BLACK STK PP31167 |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 2006 CHEVY AVALANCHE BLUE STK P084373A |
| | 2010 CHEVY IMPALA SILVER STK P107055 |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 |
|---|--|
| 2009 CHEVY MALIBU BLUE STK P192398 | 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
|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 2009 TOYOTA TACOMA WHITE STK P640770 |
| 2008 HYUNDAI ENTOURAGE GOLD STK P051414 |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 |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저스틴 길 제메인 존슨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